

## 신성 저요산혈증 환자에서 운동에 의해 유발된 급성 신부전증 1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내과학교실

김명규, 고강지, 김정엽, 이지은, 신진호, 권영주, 표희정

신성 저요산혈증(renal hyperuricosuric hypouricemia)은 남자에서 0.16%, 여자에서 0.23%로 비교적 드물고, 심한 운동후 합병증으로 급성 신부전이 초래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일본에서 17례, 터키와 파키스탄에서 각각 1례를 보고하였다. 운동후 급성 신부전이 오는 기전은, 운동시 유도된 신혈관 수축에 대해 혈청 요산의 항산화 효과가 결여되고, 뇨 산성화와 요산의 신장 배출 증가로 비롯된 신세뇨관 폐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저자들은 신성 저요산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운동과 연관되어 발생한 급성 신부전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25세 남자환자가 내원 4일전 심하게 운동한 후, 발생한 복통과 근육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 사항이나 최근 복용중인 약물은 없었으며, 내원 당시 혈압 120/80 mmHg이었고, 양측 늑측간 동통도 없었다. 혈청 생화학검사에서 요소질소 29 mg/dL, 크레아티닌 3.9 mg/dL, CK 891 IU/L(29-145), LDH 438 IU/L(0-500)이었고, 요산은 2.5 mg/dL로 감소되어 있었다. 요검사에서 단백뇨, 혈뇨나 마이오글로빈은 없었고, 소변 나트륨 배설량은 40 mEq/L 이상이었으며,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양측신장의 에코가 약간 증가되어 있고 골스캔은 정상이었다. 수액치료와 요알칼리화 치료를 진행하면서 임상증세가 호전되어 입원 6일에 혈청 요산이 1.2 mg/dL, 혈청 요소질소 18 mg/dL, 크레아티닌 1.8 mg/dL 까지 감소하여 퇴원하였다. 회복후 시행한 24시간 뇨검사서 1010 mg의 요산이 배출되고 퇴원 1개월후 크레아티닌 1.19 mg/dL, 혈청 요산이 0.5 mg/dL로 신성 고요산뇨에 의한 저요산혈증으로 현재 추적 중이다.